

고객사

웨스트월드(Westworld)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GIFC 타워)

소프트웨어

Autodesk® Ma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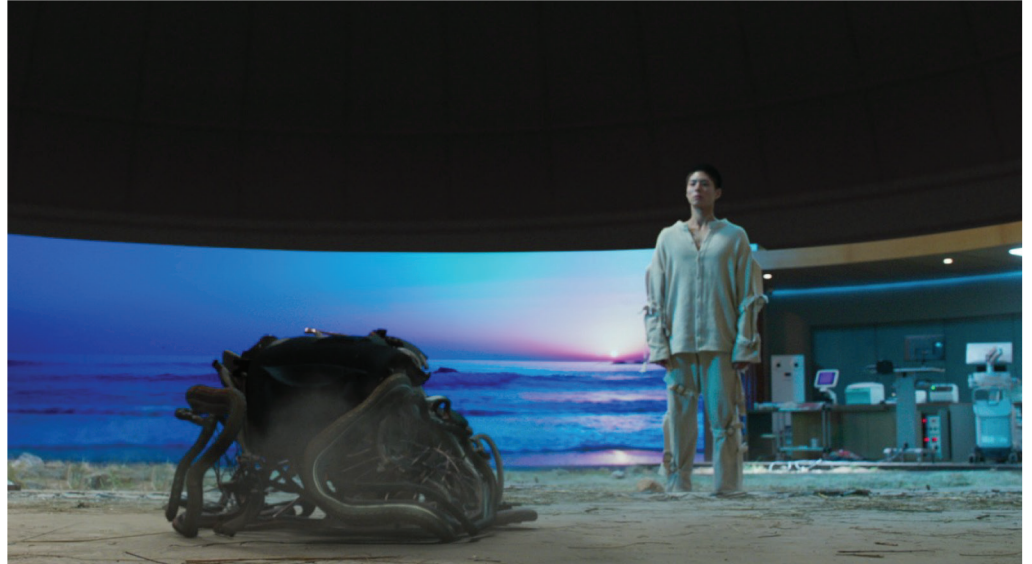
Autodesk® Bifrost for Maya

VFX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간다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작업 효율성과 작품 완성도 향상

“국내 최고의 디지털 인터미디어트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프리-프로덕션부터 포스트-프로덕션까지 작품의 시작과 끝의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작업 효율성과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 정고은 이사, 웨스트월드



영화 <서복>에서 주인공 서복이 염력을 활용해 악당 김천오 박사를 공격하는 모습(이미지 제공: 웨스트월드)



웨스트월드 대표작 메인 포스터:

서복(2021), 영웅(2021), 스위트홈(2020), 이태원 클라쓰(2020)

(이미지 제공: 웨스트월드)

통합적인 디지털 시각 효과 스튜디오 '웨스트월드'

웨스트월드는 20년 이상 한국 VFX (Visual Effects, 시각효과) 산업을 이끌어온 업계 베테랑들이 설립한 VFX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18년 10월 설립 이래 <스위트홈>, <쌍갑포차>, <더 킹: 영원의 군주>, <시그널>, <이태원 클라쓰>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영화와 드라마의 VFX 작업을 담당하며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고 있다.

웨스트월드는 작품 촬영에 앞서 제작하는 3D 프리-비주얼 가이드(Pre-visual Guide)와 같은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부터 촬영 영상과 후반 작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디지털 인터미디어트(Digital Intermediate, 이하 DI), 영상의 화질과 음질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마스터링 등의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까지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통합적인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웨스트월드는 탁월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짧은 시간에 VFX 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

VFX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대부분의 영상 제작사들은 작품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외주 업체들과 협업하게 된다. 원하는 최종 결과물의 색을 얻기 위해서는 VFX작업과 DI작업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데, 이에 웨스트월드는 DI 전담 부서를 두고 VFX뿐 아니라 DI 작업을 내부에서 진행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로케이션 촬영이 어려워지면서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작품에 사용될 배경이나 캐릭터를 사전 제작하고 이를 LED 스크린에 띄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촬영하는 기술이다. 웨스트월드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극 도입, 적용하며 국내 프로덕션 트렌드를 선도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의 경우 사전 제작한 디지털 캐릭터를 촬영 현장에서 보면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넷플릭스 차기작인 <고요의 바다>에서는 LED에 배경을 띄워 촬영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방식을 사용했다.

Maya 및 Bifrost Extension으로 상상 속 장면 구현

최근 웨스트월드는 영화 <서복>의 VFX 작업을 맡아 진행했다.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유명한 이용주 감독의 8년 만의 복귀작인 <서복>은 전직 정보국 요원 출신 '기현(공유 분)'이 복제인간 '서복(박보검 분)'을 지켜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담은 SF 영화로, 공유, 박보검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주목받았다.

웨스트월드는 <서복>의 VFX와 CFX (Creature Effects) 작업에 오토데스크의 Maya (마야)와 Maya에서 제공되는 Bifrost Extension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을 활용, 더욱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시각 효과를 구현했다.

Maya는 3D 모델링 및 렌더링,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캐릭터의 움직임 구현을 위한 리깅(Rigging)과 애니메이션에 주로 사용된다. <서복>에서는 특수부대원, 장갑차, 헬기, 화려한 도시 배경, 땅과 건물이 붕괴되는 고난이도의 장면 연출에 사용됐다.



영화 <서복>에서 서복이 염력을 활용해 김천오 박사를 공격하는 모습 촬영 장면 및 해당 장면을 오토데스크 Bifrost Extension을 활용해 그래픽으로 구현한 모습(이미지 제공: 웨스트월드)

Bifrost Extension은 화염, 폭발, 구름, 연기 등 소재 기반의 복잡한 특수 효과를 시각적 프로그래밍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한다. <서복>은 국내 최초로 Bifrost Extension이 제작 과정에 사용된 영화다. <서복>의 VFX를 담당한 전병근 팀장은 “작업 마감을 3일 앞두고 극중 서복이 김천오 박사를 찾아가 복수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했다. 김 박사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공처럼 구겨지는 장면이다. 짧은 장면이지만 고도의 기술과 디테일이 요구되는 특수 효과를 빠른 시간 내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Maya와 호환성이 좋은 Bifrost Extension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상상 속이나 가능할 법한 장면을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구현했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MPM Solver (MPM 솔버) 기능을 활용해 그래픽 품질을 낮추는 대신 시뮬레이션 속도를 높이고, 이후 디테일을 높여 그래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완성했다. Bifrost Extension에서 MPM Solver의 콜리전(collision)은 매우 안정적이고 뛰어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완성도 있는 장면들을 만들 수 있었다.

VFX를 넘어 영상 제작까지, 끊임없는 도전

Maya의 오랜 사용자인 전병근 팀장은 nCloth (엔클로스) 등 기능을 사용해 작품 캐릭터 제작과 머리카락이나 털, 옷, 근육 등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장면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왔다. 한층 더 높은 퀄리티의 특수효과 구현을 위해 시장에 출시된 다른 솔루션들을 살펴보면 전 팀장은, Maya와 호환성이 쉽고 유사한 UI를 갖춘 Bifrost Extension을 접하게 됐다.

전 팀장은 <서복>을 통해 Maya와 Bifrost Extension의 강력한 기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호환성과 쉬운 사용성을 체감했다. Maya 안에서 VFX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했다. 또한 Bifrost Extension의 빠르고 안정적인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전 팀장이 다년간 쌓아온 Maya 사용 경험 덕분에 손쉽게 작업할 수 있었다.

새로운 VFX 작업 툴로 Bifrost Extension의 가능성을 발견한 전 팀장은 향후 디포머(Deformer) 및 캐릭터 리깅 등 다양한 작업에 Bifrost Extension을 사용할 계획이다. VFX 전문 스튜디오에서 영상 제작을 위한 통합 디지털 솔루션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웨스트월드는 향후 자체 콘텐츠 제작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웨스트월드 정고은 이사는 “웨스트월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향후 작업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라며, “리얼타임 게임엔진 등 영상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다양한 솔루션과 기능들이 더해 진다면 앞으로도 오토데스크와 함께 무궁무진한 발전을 일궈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토데스크 Maya는 VFX 및 CFX 작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툴입니다. 특히 Maya에서 제공되는 Bifrost Extension은 뛰어난 성능과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제보다 더 리얼하고 섬세한 특수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병근 팀장, 웨스트월드